

정직한 기도

- 하신주 원장 / 2003. 7. 15 -

(창의적 접근 지역 유치원 원장,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교회교육국 국장)

눅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 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기도’란 어떤 기도를 의미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의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첫날밤 감람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 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기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직한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전, 말씀이 순종 할 수 없는 또 순종하기 싫은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 속에 깊은 감정 내 안에 진실을 숨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기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 QT 하는 것이 너무 지루해요.”

“전 학교 가는 것이 싫어요. 친구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사랑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섭섭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기뻐할 수 있는 정답 또는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잠 15:8)

-정직한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잠 3:32)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비록 부끄럽고, 부정적이고, 상처받고, 뺨뚫어져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나타내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위로와 격려 그리고 아픔까지도 치유 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야단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용납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됩니다.

순종은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정직한 기도를 위해서 아이들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의 생각과 느낌을 정직하게 말씀 드려 보자고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부터 먼저 아이들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또 정직한 기도는 반드시 순종하는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정직한 기도로만 끝나면 내 중심적인 기도가 됩니다.

올 여름 성격학교에서는 이런 정직한 기도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